

닛신보 등 3사, 면 100%의

노 · 아이언 · 셔츠 개발

닛신보는 홍콩의 “탈 · 어패럴(TAL · apparel)” 등의 3사가 “컬래버레이션(collaboration : 공동연구)”으로 면 100%의 노 · 아이언 · 셔츠(no- iron-shirts)인 “논 · 케어(Non-care)”를 개발하고, 2003년 추동절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. 첫해에 50만매, 3년도에는 250만매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.

닛신보는 자사제품 중 면 100% 형태 안정 셔츠용 소재를 바탕으로 “논 · 케어”용 소재를 개발하였다. 나노사이즈의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면 셀룰로스 분자쇄(分子鎖)를 나노사이즈 수지가교제로 반응시켜 연결함으로써 형태 안정성을 만들어냈다. 과거에는 형태가 안정되도록 컨트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었는데 고도의 가교반응기술로 제어하는데 성공하여 “워시 앤 웨어(wash & wear)”성이 5번 세탁 후에 3.5급으로 거의 구김이 없는 형태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.

이 새로 개발된 소재에 봉제기업인 TAL이 갖고 있는 퍼커링(puckering : 봉합된 부분의 봉사의 장력이나 원단의 물성 차이 등으로 솔기 부분에 생기는 우글쭇글한 주름)에 관한 특허로, 봉합 부분의 주름을 제어하는 봉제기술인 “테이프봉제”방식으로 봉합하여 개발한 제품이 “논 · 케어”이다.